



일본 시각으로 본 미북 비핵화 협상과 통일

시부에 치하루
마이니치 신문 서울지국 기자

■ 바람직한 남북통일의 방향성

북한 정부수립 70주년인 2018년 9월, 취재차 북한에 갈 기회가 있었다. 물론 그곳에서 자유로운 취재는 할 수 없었다. 김정은 경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고, 매스게임 등 집단주의가 강조되었으며, 열악한 통신 상황을 체험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느꼈다.

김씨 일가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무게를 둔 북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경제발전을 이미 이룩한 한국, 두 나라가 통일될 것이라는 상상은 할 수가 없었다. 나에게서는 한국도 북한도 똑같은 외국이다. 그러나 나는 한국에서 살면서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느낌을 전혀 들지 않는다.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북한보다 일본과 더 공통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미 70년 넘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던 남북한이 조국통일을 이념적으로 버릴 수 없는 부분은 이해가 간다. 일본 측에서는 한국 정부가 ‘통일’을 강조하면 ‘적화통일’을 상상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이 지향하는 통일이 무엇인지 한국 측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통일은 남북한이 서로의 정치제도는 존중하고 유지하면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평화통일’이라고 본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다. 경제제재 완화가 그런 통일방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 현실적인 전략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이란문제를 비롯한 중동정세 불안정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북한도 작년 말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대화 여지는 남겨놓고 있다. 올해도 2019년에 이어 미북 간 교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 와중에도 북한이 핵물질 생산,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과 한국이 어떤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 입장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IRBM)에 대한 위기의식이 강하다. 또한 미국과 북한이 스몰딜(small deal)에 합의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기만으로 타결될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도 긴장이 높아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 북한의 중단거리탄도미사일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는 동일하다.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의 협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도쿄올림픽을 활용할 수 있다.

■ **일북 협상 재개 가능성**

아베 정부가 북한에 대해 무조건 대화 입장을 내놓을 수 있던 배경에는 아베 총리가 2002년 미북 정상회담 당시 관방부 장관으로서 동행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있다. 일본과 북한의 물밑교섭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북 협상의 재개는 북한에 달려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식민지배에 따른 피해보상금 조로 많은 돈을 낼 명분이 있는 일본이라는 카드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

다만, 납치자 문제가 미제로 남아 있고,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이 없는 현 시점에서 일북협상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북한은 청구권과 관련해 한일갈등의 원점인 강제징용문제에도 주목할 가능성도 있다. 강제징용 문제에서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 **토론자:** 시부에 치하루_ 마이니치 신문 서울지국 기자. 도쿄대학 교양학부를 졸업하고 2003년 마이니치신문에 입사했다. 오사가 본사 사회부, 도쿄 본사 외신부를 거쳐 2018년 4월부터 서울지국에서 특파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공저로는 《간병살인: 벼랑 끝에 몰린 가족의 고백》(2018)가 있다.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9) j.baek@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 본 토론문은 동아시아연구원이 2020년 1월 21일 개최한 [Global NK 핵inSIDE 토크] 2020 동아시아연구원 대북 통일전략 토론회의 자료입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